

지역 매 아리

정읍시민대상 특강

국제구호활동가 한비아 초청

국제 구호 활동가인 한비아 씨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당신에게 보내는 1그램의 용기'를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바람의 딸'로 불리는 한씨는 불리는 오지여행 전문가로서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가슴 뛰는 삶에서 얻은 용기를 인도주의적 삶의 실천으로 변화시키며 살아온 과정을 들려 줄 예정이다.

한씨는 국제 홍보 회사인 벵스-마스텔라 한국지사 마케팅부 차장으로 재직하다가 돌연 사표를 내고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전 세계 오지를 여행했다.

그 후 그 가슴 뛰는 삶을 뒤로 한 채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 국제구호팀 팀장으로 재직하며 세계 각국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구호활동을 펼쳤다.

이런 특강은 제7회 정읍 단풍아카데미(前 시민행복특별강좌) 일정으로 마련됐다.

정읍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정읍시가 시민과 함께 수돗물 생산과 공급체계를 점검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시는 이의 일환으로 6월 28일 오후 상반기 정읍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김종길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수돗물 수질 향상 방안은 상하수도사업소와 한국수자원공사 정읍지사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시, 복권기금 활용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의 집 고쳐주기 '호평'

저소득층 대상, 올해 100여가구 지원

주택 점검 개·보수...삶의 질 높이는데 기여

정읍시가 복권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호평받고 있다.

시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주거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제때 개·보수를 하지 못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복권기금(국비) 1억 4,800만원에 시비를 더한 총 2억9,600만원을 들여 지붕개량과 도배·장판과 싱크대 교체, 창호 시설, 화장실 보수 등을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올해 사업 목표는 74가구였으나 공개입찰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 목표량보다 훨씬 늘어난 100여 가구 이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자활 능력이 부족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세대 등 저소득 계층의 주택을 점검하고 개·보수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반짝반짝 동행 여름 캠프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운곡탐사르습지 일원서

고창군이 6월 30일부터 7월 1일 까지 1박2일 동안 운곡탐사르습지 일원에서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반짝반짝' 동행 여름캠프를 실시했다.

'반짝반짝 동행 여름 캠프'는 운곡탐사르습지의 생태적 우수성을 알리고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주최하고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회(회장 김동식)가 주관해 마련됐다.

고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에서 선착순으로 모집된 참가자 20여명과 탐방 공무원, 운곡습지생태관광협회회원 등은 운곡습지 탐방안내소에 상주하고 있는 자연환경 해설사와 동행해 운곡탐사르습지를 함께 비추는 반딧불이 체험 행사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쌓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국내 반딧불이는 애반딧불이, 운

문산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세 종류로 이번 캠프에서 볼 좋은 흔히 개뿔벌레로 불리는 애반딧불이로 6월말에서 7월초 밤 9시경에 별처럼 예쁜 빛을 뽐낸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한 참가자들은 애반딧불이 빛을 내뿜는 모습을 보며 호기심 가득한 모습으로 자연 속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운곡습지의 애반딧불이 개체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것은 인위적인 요인이 아닌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회의가 탐사르습지도시 인증사업의 일환인 습지 복원을 위해 실시한 논둑복원으로 반딧불이의 서식처가 개선되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캠프에서는 반딧불이 관찰 외에도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첫째 날은 나무 목걸이 이름표를 만들고 참가자를 소개한 후 운곡탐사르습지를 탐방하기에 앞서 탐

사르습지에 대한 이해 및 운곡습지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운곡습지의 여름밤을 느꼈다.

둘째 날은 2014년 생태관광우수 마을로 선정된 용계마을 산책을 시작으로 고창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휴식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된 호암마을 명상센터에서 다도체험을 진행한 후 지난 5월초 개관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전시실을 둘러보고 용계마을 생태발상 체험을 마지막으로 이번 캠프를 마무리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지표공충인 반딧불이 볼 수 있다는 것은 고창운곡탐사르습지가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아름답고 낭만적인 여름밤을 밝히는 반딧불이를 보며 자연환경의 가치와 감수성을 깨워주는 생태관광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소방서, 재난대비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실시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술)는 지난 28일 회의실에서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소방서 관계자 및 정읍경찰서, 제 8098부대 등 12개 기관 긴급대응협력관이 참석하였으며 ▲ 긴급대응협력관 제도 취지 설명 및 운영계획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공유방안 ▲ 기타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 간 재난대비 협조사항 논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성계 방호구조과장은 "다변하는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서는 긴급대응협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긴급구조 현장에서 수습·복구 등 원활한 공조체계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지역 발전을 위해 일한 것이 가장 큰 보람"

민선 6기 제46대 박우정 고창군수 퇴임



"고창군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생애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협력하고 큰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고창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인의 본향 고창군을 전국 최고의 이름답고 청정한 명품 지역으로 만든 민선 6기 박우정 고창군수가 지난 2014년부터 숨 가쁘게 달려온 4년간의 임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9일 오후 고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퇴임식에는 최인규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이수혁 국회의원, 기관사회단체장, 공무원과 군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고창군과 군의회, 모양회, 농협 중앙회고창군지부와 지역농협, 고창부안축협, 이장단연합회, 고창수협,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 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 등 많은 기관 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박우정 군수의 퇴임을 축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우정 군수는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행정추진과 예산 확보에 탁월한 성과를 올려 2018년 국가예산 역대 최다액인 1328억원을 확보하고 고창군 예산 6천억 시대를 연 '일하는

경제 군수'로 평가 받고 있다. 전북 최초로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등재와 전북 최초 고인돌과 운곡습지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등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의 자연생태 환경의 가치를 극대화했고, 청정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북분자와 수박, 멜론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통한 소득 증대에도 힘썼다.

특히,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각종 지방하천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안심·안전 고창의 기틀을 다졌다.

박우정 군수는 "군민과 재외군민, 고창군 공직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14개 읍면 구석구석에 성실한 탐과 숨결을 불어 넣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군을 키워온 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며, "어느 곳에 있는 고창인의 한 사람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선7기를 새롭게 이끌어 갈 리더로 선택 된 유기상 군수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정당한 자연생태환경과 풍요로운 문화유산,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가득한 우리 고창이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지역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해경,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추진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매년 증가하는 수상 레저 활동자들의 안전한 레저활동을 보장하고, 수상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해양레저활동 추세가 사업장 위주에서 개인 활동자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개인 활동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및 현장 중심의 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내수면 수상 레저사업장 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지자체와 합동점검팀을 구성,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해수면 수상 레저활동 다발해역에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집중 배치해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사



고 예방에 주력기로 했다.

또 수상레저 최성수기인 7월과 8월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집중 단속을 통해 안전장비 미착용,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등 관행적 불법 행위 단속과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안=이국수 기자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슈 참가 및 우승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NSL2)취득

